



“삼보사찰 천리순례, 불교중흥 기틀 마련하는 보살만행”

조계종 중정 진제대종사특별법어
만행은 한국불교 오랜 수행전통
걸음마다 일심으로 화두 챙기고
지혜자비로 불교중흥 초석 놓길

조계종 중정 진제 대종사가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발원하며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나서는 사부대중에게 특별
법어를 내렸다.

진제 스님은 8월13일 부산 해운정사
에서 법보신문 취재진과 만나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직
접 특별법어를 전달했다. 스님은 법어에
서 “지난해 (대구 동화사에서 서울 봉은
사까지의)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이어 사
부대중이 동참해 불법승 삼보사찰을
순례하는 것은 영겁의 수승한 인연 공
덕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작금의
지구촌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탐욕과 화, 무명의 망상분별로 가
치관이 전도돼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망각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천리순례에 임하는 사부대
중은 걸음걸음마다 일심으로 화두를 챙
기고, 대차대비의 심정으로 코로나 전염
병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박멸되고, 만
민 합력해 불교중흥의 초석을 놓고 불
국정도를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앞서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
서도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부처님 가
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부대중의 두타행
으로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온
국민을 제도하는 보살만행”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부처님은 길 위에서 태
어나 길 위에서 대오견성했고, 길 위
에서 설법하다가 열반에 드시는 등 일생일
관 길 위를 떠난 적이 없다”며 “부처님
이 가신 것처럼 사부대중이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번 천리순례가 만행수행의
전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
대감을 드러냈다. 스님은 “한국불교는
여름과 겨울 대중이 모여 안거를 진행하
고 해제 때에는 선지식을 진전하고 수행
도량을 참배하면서 공부를 점검받고, 자
신을 돌아보면서 만행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상월선원 사부대중이
옛 만행수행 전통을 복원하는 것은 산철
에도 방일하지 않고 씬 않는 용맹정진으
로 이끌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스님은 “천리순례는 지혜자비로
서로를 닦아하고 향상시키는 활발발한
수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번 천리순례가 침체된 한국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님은 “송광사, 해
인사, 통도사로 이어지는 천릿길 만행정
진은 상구보리와 하화종생, 자각각타
각행원만을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사부대중이 두타행으로 구법
만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 결사가 지
속되고 심화된다면 침체된 불교가 다시
중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어 “만행결사 모든 대중들은 수행
자로서 본분사를 잊지 않고 화합정진하
면서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화두를 놓지
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만행결
사를 회향할 때에는 모두가 활연대오해
광도중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 관련법어기사 2~3면
부산=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조계종 중정 진제 대종사는 8월13일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부대중의 두타행으로 불교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온 국민을 제도하는 보살만행”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사진=주영미 기자 ez001@beopbo.com

광복절 앞두고 ‘서울 진관사 태극기’ 보물 된다

문화재청, 8월12일 승격 예고
태극기 보물로 지정된 첫 사례
일본에 대한 저항의지 극대화



초월 스님이 3·1운동 무렵 조성한 태극기.

사찰이 일제강점기 중요한 독립운동 근
거지였음을 증명하는 ‘서울 진관사 태극
기’가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광복절을 앞
두고 8월12일 국가등록문화재인 ‘서울
진관사 태극기’ ‘대니 태극기’ ‘김구 서명
문 태극기’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27
일 진관사 칠성각 해체·보수 공사 도중
발견됐다. 가로 89cm, 가로 70cm 크
기에 태극의 직경은 32cm다. 일장기 위에
먹으로 태극 청색부분과 간·군·감·리 4
괘를 덧칠해 만든 태극기로, 일장기를
거부하고 일본에 대한 강한 저항 의지를
극대화한 표현이 담겼다. 일장기 위에
그려진 태극기로는 현재 유일한 사례다.
왼쪽 윗부분 끝자락에 불에 탄 흔적

과 총알에 찢긴 듯한 구멍이 곳곳에 뿔
려 있어 3·1운동 현장에서 쓰였을 가능
성이 높다. 1919년 6월6일부터 12월25일
사이 발견된 신문들도 태극기에 싸여 함
께 발견돼 1919년 제작됐다는 분석을 뒷
받침한다. 태극기에 담긴 신문은 ‘신대한
신문’ ‘독립신문’ ‘조선독립신문’ ‘자유신
종보’ ‘경고문’으로 모두 5종 19점이다.

특히 신재호 선생이 발행한 ‘신대한신
문’ 23호도 ‘서울 진관사 태극기’에서 최
초 발견됐으며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자
유신종보’도 3점이 나와 실물이 처음으
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

에서 발행한 ‘독립신문’ 제30호 1면에는
‘태극기’라는 시(詩)가 수록돼 있고, 제32
호에는 ‘태극국기신설’이 게재돼 태극기
의미와 제작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사찰이
일제강점기 중요한 독립운동 근거지였
음을 증명한다. 조성자는 초월 스님(初
月, 1878~1944)으로 추정된다. 20대 후
반에 강백을 역임할 정도로 교학에 밝
았던 초월 스님은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불교계 독
립운동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스님은 진관사를 중심으로 전국
사찰을 왕래하며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또 진관사에서 보살계 법회를 열어 군자
금을 모금, 제2의 3·1운동을 추진하고
임정의 독립신문과 비밀 지하신문을 배
포했다. 임시정부와의 연락망을 만들고
만해·용성 스님 등 불교계 항일인사 활
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1939년 용산 철도국 노동자 박

수남이 용산역에서 만주로 가는 군용열
차에 ‘대한독립만세’를 적은 사건에 함
께 연루돼 일정에 체포, 3년간 구속당했
다. 출옥 후에도 임정에 군자금을 보내
다 다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대전형무
소·청주형무소 등으로 이감되다가 1944
년 6월 청주형무소에서 순국했다.

태극기가 보물로 지정 예고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물은 보통 제작, 형성
된 지 100년이 넘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
기에 근현대 중요 문화유산은 대부분 국
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도 2010년 2월25일 국가등록문화
재로 지정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진관
사 태극기는 불교계 다양한 계층에서 주
도했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양상을 잘
보여주고, 표현기법으로 항일 정신을 강
력하고 생생하게 담고 있다”면서 “학술
적으로 매우 귀중한 자료이기에 보물로
승격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주연 기자 jeongjy@beopbo.com

무진등·최종환 영등포장애인복지관장·7면

“수도권 사찰 99명까지 법회 가능”

조계종, 8월9일 새 방역수칙 하달
비수도권의 경우 20%로 제한

조계종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을 공
지하고 수도권 사찰 법회 수용인원을
10%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최대
99명까지 법회 참석이 가능해졌다.

조계종은 8월9일 제11차 방역수칙을
내리고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에 따라 초하루와 일요일법회 등 정기
법회 시 참석인원을 수도권 사찰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비수도권 사찰은 20%
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의 적
용 기간은 8월9~22일이다.

지침에 따르면 좌석이 없는 법당의 경
우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하기면
적 6m²당 1인으로 산정해 참석인원을
계산해야 한다. 동 시간대 공간별로 수
용인원의 10% 이내로 운영이 가능하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법회 참석
이 가능하다.

단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비대면 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조계종은 일상생활 속 지침도 공지했
다. 지침에 따르면 사찰 내에서는 만드
시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기도과 예배 집전, 동참 시에
도 적용된다.

사찰 공양은 상주대중에게만 운영되
며 신도 및 외부인에 대한 대중공양과
공용 음식대, 공용물품 운영을 중단하
야 한다. 사찰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
고 출입자 명단관리 및 발열 체크를 실
시한다. 명단관리는 전화기만 출입명부
사용을 권장하며, 4주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또 실내공간은 1일 3회
이상 환기를 시행하고 환기대장을 기재
해야 한다.

49재와 제사 등 의식에 대한 지침도
내렸다. 반드시 ‘장례식장’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해야 하며 3~4단계의 경우
빈소별 개인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50인 미만만 참석할 수 있다.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테
이블 간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수행, 건강, 지혜를 위한 하루한끼

오직 7가지 곡물만 천연재료 연두현미

활력보강, 체질개선, 식이요법, 참선 건강식

머리를 맑게해주는 스님에게 필요한

72시간동안 만들어진
자연발아현미

생기 넘치는 아침, 가벼운 휴식을 위한
저녁식사 대용으로 딱 좋습니다.
포만감 가득한 160칼로리 식단, 풍부한 비타민 D 함유
당장 이번주 부터 연두현미 하세요.

예로부터 불가(佛家)에서 수행을 할 때
머리를 맑게 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곡식을 찌고 볶아서 먹었던 선식(禪食)

식자제 법자제(食自製 法自制)
'스스로 음식을 다스려야 진리를 세울 수 있다'는
사찰음식의 근본정신을 새기며
스님들과 불자들의 수행과 정진에
도움이 되고자 씨앗농부의 고집을 담았습니다.

〈연두현미 원재료명 및함량〉
유기농 자연발아현미(국산) 60%, 유기농 찰보리(국산) 10%, 유기농
엿절감(보리쌀, 국산) 10%, 쌀눈(국산) 5%, 묵이버섯분말(국산) 5%,
모시잎분말(국산) 5%, 새싹보리(국산) 5%

無첨가 7원칙
으로 건강에 중점을 두고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